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①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3. 윗글을 쓴 학생에게 ①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끼 문제

- Q1. (가)의 2문단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약간 다른 상품'과 같은 말을 1문단에서 찾아보자.
- Q2. (가)의 3문단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까?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9. 문맥상 ㉠과 바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插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와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유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지의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 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끼 문제

Q1. ㉠와 ㉡는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Q2. ㉠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 HMD :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 시차 :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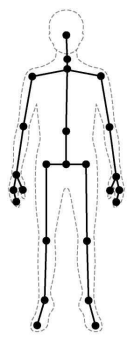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담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

“㉢ 이 사람, 양반이 불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만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지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세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라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쳐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 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미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엿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나.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나.”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①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옵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신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중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목낭청 :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19.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헌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테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언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켈 뿐 한가하다.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 “음!”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

윤 노인이 또, “하하아 저 물빛 봐!”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막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결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 그들의 경현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감감한 칠야, ㉢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라는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 섯 날에 보는 ㉤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밤 한 사람의 회색이 있었다. 윤 노인이었다. 그의 머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어밀자 윤 노인은 머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가 무슨 일로선지 머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를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B] — 설마 죽었을라고 —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똥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아낙네들이었다. 멀치 철이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 오영수, 『갯마을』 -

(나)

S#14.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윤 노인과 박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윤 노인 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 시면 속절없는 거야.

박 노인 암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며)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윤 노인 (침통하게) 음...

박 노인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S#15.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S#16. 바위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S#17.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S#18.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

S#19.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번쩍이는 번개./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S#20. 들판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벼락이 떨어지며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쏟아지는 비! 비!/몰아치는 바람.

S#21. 길(밤)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숨은 하늘에 치달고/웃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넘어지며 달린다./번개! 천둥...

S#22. 성황당(밤-비)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해순 서낭님에... 서낭님에...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시 후 순입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S#23. 하늘(밤-비)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뿐이다./크게 번개가 친다.

S#24.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처절한 성구의 얼굴/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철./분주한 선원들의 모습./더욱더 거센 파도./흔들리는
 배사람들.../파도에 쓰러지고/흔들림에 넘어지고.../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S#25. 성황당(밤-비)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

S#26. 윤 노인의 집 앞(밤-비)
 윤 노인이 나온다./순임이 따라 나오며
순임 아버지예.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김니꺼...
윤 노인 마 피땀 다녀올 까다...
순임 내일 아침에 가지면 안 될까요...
상수 (가며) 양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S#27. 축항(밤-비)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협스럽게 걸어온다./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 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O.L.

S#29. 아침 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
 하다./모래발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

* 후리 : 그물의 한 종류.
 * 풍타주 :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
 내는 편집 방식.

22.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다.
 - ③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 ④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 ⑤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 ②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군.
- ③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 ④ ‘물웃’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군.
- 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군.

25.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
 - ②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 ③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⑤ S#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26. (나)의 S#18과 S#2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S#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 **과제**: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이다. (가)의 ㉠~㉥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결과를 탐구해 보자.

(가)	(나)	(가)에서 (나)로의 각색 방향
㉠ ⇒	S#14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 ⇒	S#15~S#17	비유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 ⇒	S#22, S#25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 ⇒	S#28	사건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 ⇒	S#28, S#29	하나의 상황을 O.L.(오버랩)을 활용하여 제시하기

- ① ㉠을 대화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를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에서 상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 ④ ㉣을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에 나타난, 폭풍우가 몰려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낭낭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찡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편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찡찡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A]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플라 넣는다 [B]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 이면 갑자기 높아 세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끈-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룻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 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짙정 올리던 옛날'과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민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중(面目可憎)* 되거고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재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재 곳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둘러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뗏소리 첫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락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일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 다시 : 시기가 많음.
- * 면목가증 :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혼덕혼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옹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받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혼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